

한-노, 북극항로 공동연구 성과 공유 및 협력 강화

- 한편 이번 회의 개최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한국선주협회와 노르웨이 선주협회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양국 해운업계 간 공동 연구기술 교류 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

- 해양수산부는 '17년 9월 1일 오슬로에서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와 '제4차 해운 협력회의' 개최를 통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
- 우리 측에서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, 노르웨이 측에서는 브리짓 로이랜드 (Brigit Løyland) 통상산업수산부 해운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그 외 관련 기관 관계자,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양측 대표단이 동행
- 우리측 대표단은 해수부, 선주협회, 가스공사,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, 노르웨이측은 외교부, 선주협회, 선박검사기관(DNVGL), 북극물류센터(CHNL), 수출보증공사 등이 참석
-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▲ 한-노르웨이 북극항로 공동연구 성과 공유 및 후속 협력 방안 ▲ 녹색 해운(Green Shipping) 관련 액화천연가스(LNG) 추진 선박 연관산업 육성 ▲ 해운산업 정보 교환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
- 특히 양국은 녹색해운분야의 LNG추진선박 연계산업 발전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자국의 녹색해운 정책 개발 및 산업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 (녹색해운이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해운을 말함)
- 앞서, 해수부는 2012년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와 해운 분야 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 2013년부터 협력 회의를 개최해온 바 있음

자료 1 : 연합뉴스 ('17.08.31.)

한-러, 동방경제포럼서 단독·확대 정상회담

-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출범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역할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
- 북방경제협력의 현실화로 에너지 인프라 교통물류 ICT, 조선업 수산 등 한-러 경제협력에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

- 문재인 대통령은 '17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국내 기업인 및 전문인 등 300여명 규모의 대표단과 함께 방문해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푸틴 대통령과 단독·확대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질 예정
- 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신북방정책, 한-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
- 문 대통령의 이번 첫 러시아 방문은 한-러 정장간 우호신뢰관계를 구축하고, 이를 바탕으로 극동, 연해주 지역 양국 간 실질협력을 육성하여, 궁극적으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임

자료 2 : 매일경제 ('17.09.01.)

중국, EU 간축압박에 지친 그리스와 손잡아 '일대일로' 교두보 역할 기대

- 알렉산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을 매년 찾아 베이징에서 열리는 '일대일로' 포럼에 참석하며 '16년 5월 방문에선 중국 기업과 수십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및 중국의 '일대일로' 영향력 확대되는 양상

- 수년째 이어진 재정난으로 구제금융을 받아 연명 중인 그리스가 자국을 압박하는 유럽 국가들에 등을 돌리고, 대신 중국에 손을 내밀어 중국도 그리스를 '일대일로' 정책의 교두보로 삼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
- 최근 중국은 '일대일로'의 한 축인 '21세기 해상실크로드'를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그리스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, 대표적인 예로 2016년 중국 국영해운회사 원양해운(Cosco)이 그리스 최대 항구이자 해운 산업의 중심지인 피레우스항의 지분 67%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됨
- 지난 2010년 그리스가 재정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자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은 자금 지원의 대가로 강도 높은 간축정책을 제시하며 그리스인의 반감을 산 바 있음

자료 3 : 연합뉴스 ('17.08.28.)